

☐ 주제 발표 논문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강병문(Ph.D., 총신대학교 · 교수)

I 여는 글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은 하나님 말씀의 실제 상황(인간 심리)에의 적용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인간을 이해하고 현실을 해석하는 심리학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실제 상담 현실에서의 적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또한 자신이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극복했느냐의 정도에 따라 고난 당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느냐가 달려있는 것을 본다. 상담자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그 자신의 말씀 적용과 내담자이해를 좌우한다. 궁극적으로 상담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삶 자체로 전인적인 상담이 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특정한 이론을 안다는 것보다 상담자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성화된 성숙한 삶을 사느냐가 상담의 실체를 좌우하게 된다.

1. 전인적 상담과 세계관 그리고 Satir의 전인적 모델

내담자의 삶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내부 구조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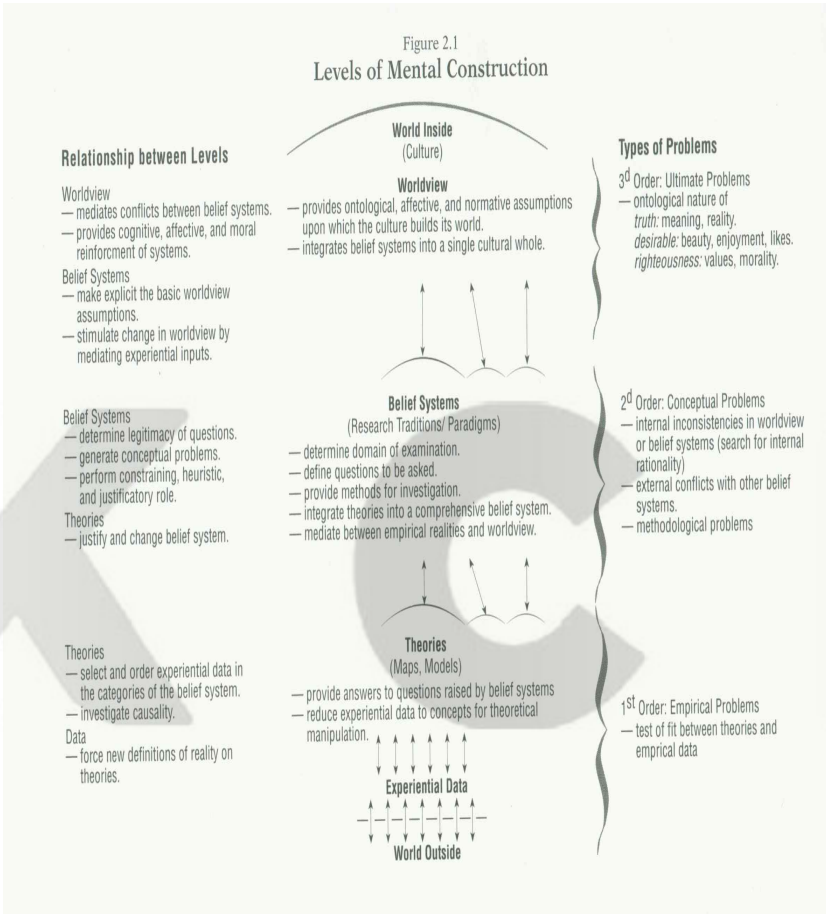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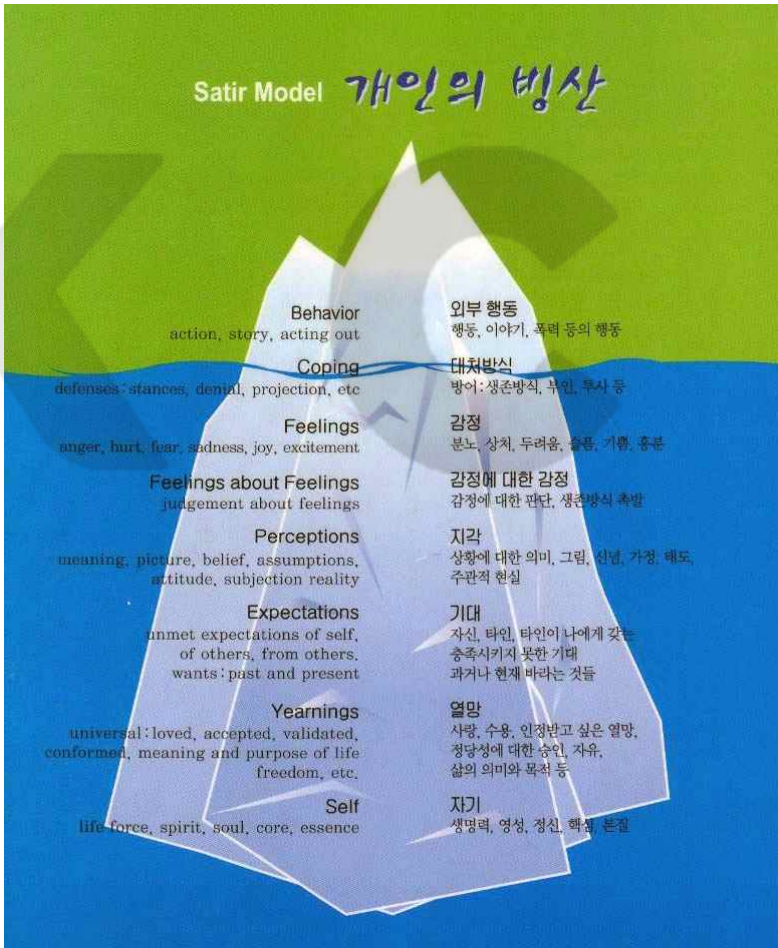
그림 1 Levels of Mental Construction (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Missiological Issues, 1994, 36p.)

에 있는 정신구조(그림 1)를 이해하여야 한다. 첫째는 개인의 세계관속에 있는 존재론적, 감정적, 규범적 가정의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이 것은 한국의 경우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사머니즘이, 태국은 소승 불교가 이라크는 회교가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건의 해석의 틀이 되고 있다. 이것을 상담자는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담자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아름다움이고 내담자의 궁극적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것이 성경적 진리와 어떤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어떤 잘못된 신념체계를 형성하고 되었나를 이해해야 한다. 가령 내담자의 가족과 사회의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이고 어떤 가치관속에서 행해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이다. 이 삶의 궁극적 문제는 정말 기독교상담자만이 다루는 유일한 영적 영역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이야기조차 되지 않는 영역이다. 둘째는 신념체계의 문제이다. 사람들은 같이 살지만 여러 영역에서 다른 신념체계를 갖고 있다. 가정의 부부역할에 대해, 자녀교육에 대해, 직업에 대해 그들이 왜 그런 신념을 갖게 되었고 그 것이 사회구조와 종교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살피는 일은 중요하다. 많은 경우 잘못된 신념체계에 대해 언급이 되지 않고 성경을 통한 정확한 적용이 안 된 경우가 너무나 많다. 셋째는 이론과 경험사이의 괴리의 문제이다. 많은 성경이 가르쳐지고 있지만 많은 경우 폭넓은 경험과 문화 이해의 부족으로 상담이 현실적인 상관성을 이미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잘못된 이론은 왜곡된 경험을 낳게 된다. 잘못된 이론을 통한 왜곡된 경험의 해석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드러내고 밝혀주어야 한다. 현재 사회는 속도와 입체적 자극을 통한 경험을 형성해주고 있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살아있고 전인적인 신앙 모델을 통해 실제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우리 정신의 내부세계는 그림 1과 같이 세계관과 신념체계와 이론과 경험이 유기체적으로 상호 작용하므로 하나의 경험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 분석이 올바르게 될 때 상담자는 내담자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곧 생각과 감정이 변하고 궁극적으로 행동이 변하여 성화되는 삶을 살게 하는 상담을 하게 된다. 상담자가 세계관의 다층적 이해를 통해 전인적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할 때 올바른 상담이 시작된다. 이러한 세계관을 상담 모델로 바꾸어

보면 경험적 가족 치료의 Satir의 모델이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 Satir의 모델을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이는 영역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인간의 내부세계를 중단면으로 잘라 보았다. 보이는 영역으로부터 행동, 대처방식, 감정, 감정에 대한 감정, 지각, 기대, 열망, 자기로 나누고 있다. Satir의 모델 중 행동과 대처방식, 감정, 감정에 대한 감정은 히버트의 경험적 영역, 지각, 기대는 개념적 영역, 열망과 자기는 세계관의 근본적 삶의 실제의 영역으로 종교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김영애 가족치료 연구소, Korea Satir Institute)

*이 사티어 모델에 대해 이 글에서는 그 틀을 기독교 모델로 전환해 설명하였다. (그림 2)

이 그림 속에서 종교와 심리는 상층구조와 하층구조로 잘 정리되어 있다. 상층구조 곧 심리적 영역은 행동, 대처방식, 감정, 감정에 대한 감정, 지각, 기대이고 하층구조는 열망, 자기로 종교적 영역이다. 사람을 치료하고 상담하는 데는 두 영역이 동시에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동시적 역동적 곧 전인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종교적 신앙이 사람의 정신세계의 핵심이고 가장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그 위의 모든 정신적 영역을 지배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종교적 신앙이 아직 심리적 영역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하고 외부적 영향과 내부적 죄의 본성이 아직도 말씀과 성령의 지배와 싸우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성화 과정 중에 성도는 처해 있다. 이 그림을 이용해서 신학과 심리학의 실제적 상황에서의 통합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먼저 종교적 영역 곧 자기(영성, 본질, 핵심)의 영역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열정을 자신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규정하고 기대, 지각, 감정에 대한 감정, 감정, 대처방식, 행동을 이 두 관계의 결과로 나오는 심리학적 영역으로 보며 이 두 영역이 실제 현실에서 상호 역동적으로 작용한다는 전제아래 이 신학과 심리학을 실제 상담입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2. 종교적(신학적) 영역 (자기, 열정)

1) 자기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세계관의 궁극적 문제에 대한 상담 실제)

(1) 상담의 핵심인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앙과 삼위일체 신앙

a. 절대 주권 신앙: 이 그림에 인간의 내면세계를 종단면으로 자르면 감각, 사고, 감정, 소원(자신, 상대방, 우리), 행동(과거, 현재, 미래)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안에 내담자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본다. 일반 상담에서도 문제 파악에 따른 문제 해결은 다른 수준에서 해결되는 것을 본다. 문제를 파악하는 수준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생각 속에서만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문제 파악행동과 문제 해결 행동은 서로 연관은 있지 않음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신앙에서 본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문제이다. 하나님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시다. 하나님 자신이 해결 그 자체이다.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사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모든 염려를 내가 해결하려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다. 염려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생기는 것이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 6-7)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만을 범사에 철저히 의지하는 삶은 나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해결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해결하셨다. 또 삼일 만에 부활하시므로 모든 문제에서 나를 온전히 해방시키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예수를 나의 전 삶의 영역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니라.”(엡 1:21-23)

b. 삼위 일체 신앙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첫째 내담자의 문제 상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가 무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이였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의 상황은 잘 알다시피 로마의 감옥에서 착고에 매인 몸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자신이 감옥에 있고 로마의 성도들과 그 가정들이 네로의 잔혹한 핍박아래 죽어가고 있고 소아시아교회들에서 여러 염려스러운 소식을 듣고 있는 중에도 여전히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확신하고 있다. 내담자가 아무리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고 자녀교육의 문제가 심각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다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확신한다면(곧 모든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산다면) 모든 고통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내담자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와 구원자이심을 믿는 마음을) 잃었을 때인 것을 본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지어다. 둘째는 내담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환경적으로 모든 환난과 극심한 문제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 표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평강이 마음에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리라는 마음의 확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은혜와 평강이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밖에서의 고난이며 빨리 나의 삶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형성을 통한

평강의 회복이 내담자 문제 해결의 근본적 과제임을 본다.

c.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셋째는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임을 본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고 그것이 이미 우리 내담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기도 전에 성도들을 보시고 택하셨을 분아니라 더 나아가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놓으신 은혜와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이 말은 성도가 어떠한 난관에 처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일이 된다면 그 것은 쓸데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수단이고 통로라는 인식을 갖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예정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속에서 평강과 확신 있는 삶을 걸으로의 폭풍과 어려움 속에서 갖게 된다. 이 성부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영광의 기업을 마음눈이 밝아 알 때 곧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하여야하느냐는 질문보다 앞으로 올 하나님의 축복에 가슴 설레게 되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구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넷째는 성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과 더불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이해가 내담자 문제 해결에 필수적임을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의 제물이 되사 성도가 어떤 난관과 장애물에 부딪히도 그리스도의 피 앞에 가져다가 놓으면 예수 피의 역사적 객관적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사실적 역사적 구원이 선교사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이야기한다. 예수의 피는 모든 삶의 고난도 다 해결하는 능력의 보혈인 것이다. 탕자의 비유 속에 보듯이 설혹 잘못하여도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섯째는 삼위 하나님 중 성령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로 계획한 것과 성자 하나님의 피 흘리셔서 이루어 놓은 구원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로 약속의 보증이 되시므로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고 순종할 때 단순히 우리 앞에 놓인 역경과 스트레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가 상상치 못한 놀라운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체험케 된다.(렘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심지어 만물을 그 발아래에 복종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

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환경으로부터 해결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눈이 밝아 질 때만 가능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고통과 스트레스도 살아계신 주님께 드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영적인 면에서 스트레스 해소의 궁극적 갈림길이 될 것이다.

(2) 열정 (하나님과 자기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상담과 믿음의 문제)

모든 인간의 고통과 문제는 죄로부터 나움을 알 수 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 죄를 회개하므로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인간 문제의 해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 일 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 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 집이 범죄 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 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 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흘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느 1:2-9)”

위의 인용된 성경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내담자가 나 자신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와 내 가족 혹은 이웃의 죄를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책임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내담자의 문제 해결은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믿음과 죄를 회개 하는 행동만이 이스라엘을 문제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느헤미야의 믿음이 없이는 참된 문제 해결행동은 없다.

2. 심리적 영역(기대, 지각, 감정, 감정에 대한 감정, 대처 방식, 행동)

1) 기대, 지각, 감정, 감정에 대한 감정, 대처 방식, 행동

(1) 한국인의 현재 모습

[개인 ~ 민족까지의 문제점]

개 인	가 정	교 회	민 족
1. 강자에게 약함(주변국가의 영향) 2. 급한 기질(계절의 영향) 3. 감정적임(정의가 서기 어려움) 4. 자기표현부족 이중성 - 유교문화의 영향 - 교류가 부족(체면유지) - 부부간의 이중성(도덕과 성의 분리) 5. 흑백논리(주종관계문제) - 순종하면 선하고 불순종하면 나쁜 사람으로 간주	1. 대화부족(두려움/무경험) - 힘의 논리에 의한 수직적인 관계, 진정한 대화가 없음. 2. 가부장제도 - 어머니의 한 때문에 지속됨 - 남편과의 대화 및 관계불만 3. 폭력(개인문제의 모 든 것) 4. 남아선호 사상 5. 고부간의 갈등 - 남편과의 단절을 아들에게 집착하다 보니 며느리와 의 다툼이 생김	1. 배타적임(교회 중심적) 2. 권위주의 - 권위 아래서 안정감을 갖게 됨 - 자기표현이 필요 없게 됨 그래서 목사님이 통찰력을 갖고 이끌어주는 교회가 성장하게 됨 3. 일 중심적임 - 대화를 나눌 줄 몰라서 그나마 일을 통해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 4. 남녀 모두 대화의 기술 부족 - 마음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표현상으로 몸이 아프거나 함	1. 놀이문화 부족 - 노는 것에 대한 죄의식 2. 빈부간의 격차 - 열등감과 상실감 유발 3. 교육열 -보상 심리 4. 지역 감정 5. 민족이기주의

(그림 3)

한국의 가정문제는 체계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정 안에서의 문제 해결만으로 해결되는 고립된 문제가 아니다. 개인 인격형성, 가족구조, 교회, 민족,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가정의 문제에 어떤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역으로 가정의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개인, 교회, 민족, 세계에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주고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과 토론한 내용을 요약하면 위의 도표와 같다.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과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 없던 우리 민족에게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부패된 모습, 즉 죄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율법주의의 이중성, 곧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풍토가 형성되어 서로 간에 대화가 부족하게 된 큰 요인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수평적 관계 중심사회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 중심사회다. 주종관계에 속해 순종하면 선한 것이고, 불순종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흑백 논리가 많이 지배한다. 상부구조의 사람만 생각하면 되고, 하부구조의 사람은 사고할 필요 없이 오직 따르기만 요구하는 패턴이다. 감정적으로는 주변국가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로 인한 급한 기질 때문에 이성적인 대응보다는 감정적 대응이 인간 관계 속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한 번 마음이 상하면 합리적 설득에 의한 관계 회복이 무척 어렵다. 이런 개인의 문제들은 가족관계에 그대로 적용되어 부부간 혹은 부모 자식간, 자녀들 간에도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여 대화에 대한 무경험과 두려움을 통한 대화 부족 현상을 일으킨다. 이 대화부족은 자녀교육과 고부관계,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이런 현상은 가족 폭력과 가정 갈등과 불화를 증폭시킨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경험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넘어와 개 교회 중심적이며 배타적 태도를 낳았고, 권위 아래서의 안정감을 원하는 경향은 당연히 담임 목사님의 통찰력과 영적 권위에 의존하는 권위주의적 교회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활동은 일 중심이 됨으로써 서로간의 인간적 갈등을 처리하는 데에 여전히 미숙함을 보인다. 또한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민족적으로도 여유 있는 놀이문화의 부족, 빈부간의 격차, 전체를 생각하기보다 내 자식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경쟁과 보상심리를 기본으로 한 과도한 교육열, 지역감정, 민족이기주의 등의 문제점들을 유발시켰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한국인의 총체적 면에서의 주요 과제는 대화의 문제이다. 대화의 문제는 바로 인식론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2) 인식론의 문제

감정과 지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역사적 고난과 맥을 같이하는 우리민족의 한의정서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사고 패턴을 만들었고 그 것은 또한 우리 민족의 정서와 감각의 패턴을 형성하게 되었다. 감정적 순화와 함께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본적 생각을 신본적 생각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찬송과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 생활이 주요 은총의 수단이 될 것이고 우리 상담 영역에서는 상담을 하는 상담자의 지적 자세 곧 인식론의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이 Satir의 도표에서 행동은 행동주의 심리학, 감정은 Rogers, 지각은 Albert Ellis의 합리 정서적 치료, 기대는

Adler의 심리학이 주로 다룬 영역이라고 할 때 이들이 연구한 심리학적 연구를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비판하면서 활용할 때 우리의 지적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그림 3에서 보듯이 폴 히버트는 「선교 현장의 문화이해」라는 그의 책에서 6가지 종류의 인식론을 언급하고 있다(26쪽). 첫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인식론의 경우에는 절대적 관념론, 비판적 관념론, 순수 관념론 내지는 순수 실재론이다. 주관적 인식의 강조와 객관적 세계의 부정 내지는 축소적 자세이다. 이 경우는 주관적 진리의 절대성을 인정하나 대화에 있어 상대방이 대화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의견에 절대적 복종하거나 완전 동의를 요구하는 인식론적 자세이다. 즉 자신의 견해를 절대화하는 경향을 가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화가 단절되거나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을 일으킬 뿐이다. 성경 해석 시에도 성경 자체보다 성경에 대한 본인의 해석을 더 높이거나 자신의 성경해석을 성경 자체와 동일한 위치에 놓는다.

네 번째 인식론의 자세는 비판적 실재론으로 주관적 인식의 겸손과 객관적 세계의 복잡성을 인정한다. 이 경우는 진리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그 절대적 진리의 인식의 한계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 대화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상대방이 부분적이나마 자기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보고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자세히 듣고 자기 자신의 견해도 부분적이라는 인식론적 겸손과 함께 그 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고 서로가 함께 협력하여 그 일을 보다 더 잘 이해하도록 노력한다.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협력하는 데 초점이 있다. 성경 해석시 자신의 견해와 상대방의 견해를 성경의 권위 아래에 두고, 성경을 서로 보다 더 잘 이해하도록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 자신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과정중임을 인식한다. 곧 성경해석의 공동체적 협력과 노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음 두 종류의 인식론의 자세는 도구주의와 결정론으로, 진리 인식에 있어서 주관적 인식의 약화나 부정과 객관적 세계의 강조 내지는 절대화하는 자세다. 이 인식론들의 자세는 절대적 진리의

존재를 부정한다. 오직 지식의 유용성이나 인과 법칙의 독재를 수용한다.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 때문에 참된 대화가 부정되고 오직 인간이 사라진 객관의 세계만 존재한다. 인간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으나 결국 자신도 바깥세계도 부정하는 꼴이 된다. 성경해석시 자기 생각에 현실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자기 식의 해석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절대적 진리에로의 가까이 감을 추구하지 않는다. 성경의 절대성과 인간관계의 실제적 연합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 차세대의 상담사역과 복음 전파사역을 위한 올바른 인식론의 자세의 정립이 우리의 시급한 과제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발견과 서로 간의 사랑과 연합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Ⅲ. 닫는 글

한국의 상담 특히 기독교적 상담은 이제 싹을 피우고 있다.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면서 급변하는 사회와 자기중심적 개인주의의 현실에서 더욱 성경적 교육에 충실해야겠고 더 나아가 심리적 이론과 현실의 문제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도전을 감당하지 못하면 기독교상담학은 현대 사회에서 그 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의 종교적 영역과 심리적 영역간의 하나님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긴밀한 대화가 더욱 심화되어 나가므로 내담자인 현대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대한성서공회 발행, 한글판 개역 성경전서, 1996.
2.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가족치료를 위한 사티어 경험주의적 접근(2003년 가족 치료 세미나). 2003.
3. Hiebert, Paul G. (1985)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Grand Rapids: Baker.
4. Hiebert, Paul G.(1994) *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Missiological Issues*. Grand Rapids: Baker. 선교 현장의 문화 이해, 김영동, 안영권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1998.

	유심론	독단적	절대주의	의지주의
관 념 론	(실재는 마음에 있다) · 지식은 그 자체가 분석의 대상이 된다. · 우리는 대상을 확실하게 안다.	(변화에 저항한다) · 지식은 정확하고 누적된다. · 자세에 있어서 선언적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신한다) · 완전히 알 수 있다.	(인간의 이성과 선택)
순 수 실 재 론	실재론 (실재는 정신을 포함한 세계이다) · 경험과 역사에 따라 지식을 테스트한다. · 지식은 전적으로 객관적이다. · 지식이 사진이다. (지식은 실재에 대한 사진이다)	· 비역사적 비문화적. · 타인에 대해 부모, 자식과 같은 접근 · 배움=기억 · 교사, 멧시지 지향적. · 거만하고 투쟁적. · 회심은 근본적인 치환이다.	· 완전히 알 수 있다. · 지식은 전적으로 객관적이다	
비 판 적 실 재 론	· 경험과 역사에 따라 지식을 테스트한다. · 지식은 주관적이며 동시에 객관적이다. · 지식은 지도요 모델이다.	긍정적 (변화에 개방적이다) · 본성상 증언적이고 평화적이다. · 문화와 역사의 맥락속에서 지식을 본다. · 성인 대 성인의 접근. · 개인과 멧시지에 관심이 있다. · 피교육자 중심적. · 학생들이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 보다 겸손한 태도 · 회심=새로운 경험의 통일적구조	· 단지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다. · 지식은 객관적이며 주관적이다.	
노 구 주 의	· 지식은 전적으로 주관적이다		상대주의 (진리는 알 수 없다) · 실용주의 · 그것이 정말 작동하는 지 검증한다. · 개중에 반대.	
결 정 론				결정론적 (인간의 이성과 선택은 쓸데 없다)

표 2) 인식론적 입장의 특성